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성황리 개최

2004년 우리나라 특허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양관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상의 영광은 '대기전력 차단 및 절전을 위한 전원공급 제어 장치'에 대한 기술을 발명한 ㈜잉 카슬루션에게 돌아갔으며, 국무총리상에는 함중훈(咸鍾勳) (주)펜 지 대표(펜형 마우스 장치)와 포항 공과대학교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열전도형 진공계이지), WIPO 사무총장상에는 김종부(金鍾富) 엔유 씨전자 대표(청국장 제조기)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총 1백 14명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주요 특허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의 개막을 알리는 주요 인사들의 테이프 커팅 장면.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번 전시회에 수상작을 비롯해 학생발명전 우수작과 역대 발명글짓기 및 발명만화 수상작 등도 전시하였다.

특히 재외동포들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한민족관'에는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발명협회에서 약재가 들어있는 건강 '보신약'과 송화

가루를 이용한 '냉국수', 약용 기능을 가진 '깨죽' 등을 선보였으며, 또 북한 관련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를 비롯해 기계공학, 채굴공학, 전 기자동차공학 등 발명 및 기술관련 자료책자 50여 점을 전시하였다. 이밖에 발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발명 체험관과 발명가와의 대화 시간, 발명품 쇼퍼블 '바이인벤션', 특허기술장터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소개 행사도 개최하였다.

민경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은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은 우수한 국내 발명품과 발명기술을 세계 각국에 널리 소개함은 물론 기술이전 및 기술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돼 사업화의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 가속화

김중갑 특허청장은 지난해 연말 일본 도쿄에서 왕 징추안(Wang Jingchuan) 중국 특허청장 및 히로시 오가와(Hiroshi Ogawa) 일본 특허청장과 '제4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라오스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지재권분야의 행동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등 다각적인 3국 특허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동 웹사이트 개발, 국제특허 관련 서류의 전자적 교환, 3국 지재권 공동현안에 대한 워크숍 개최, 3국 기술동역어 사전 개발 등으로 이로써 3국은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된다.

한국의 제안으로 '제1차 한·중·일 청장회담'이 2001년 열린 이래, 세계 특허출원 제1위(일본), 제3위(한국) 및 제4위(중국)인 세 나라가 이처럼 지역협력을 가속화해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지재권 이슈에서 동아시아가 갖는 발언권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경제의 근간인 첨단기술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지향하는 3국 특허청의 수장이 최근 각국의 지재권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4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성대히 열리다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한 '2004 서울국제발명전시회(2004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Young Inventors)'가 지난 2004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양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지식산업사회의 기반 조성을 토대로 국민들의 발명마인드 확산과 세계 속에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고, 새롭게 열린 21C의 시작을 발명과 더불어 우리의 기술과 문화를 세계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또한 통일부, 외교통상부, 산업

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KOTRA,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적재산권보호협회,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IFIA(국제발명가협회연맹)가 후원하여 열리게 됨으로써 발명선진국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내의 내국인 및 국외의 외국인인 개발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발명품에 한하여 대상인 그랑프리(한국발명진흥회장상) 1명, 우수상인

SIIF상 10명(내국인 5, 외국인 5), 금·은·동상 10명 외에 WIPO 사무총장상, IFIA 회장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등 각국 발명관련단체장상이 특별상으로 약 20점 선정되었다.

최고상인 그랑프리는 러시아의 Bauman Moscow State Technical University의 Konovalov S씨에게 돌아갔으며,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인 김정신(㈜아이에스디지털 대표)씨에게는 WIPO 사무총장상이, 나순임(CAMI 은점토공예 대표)씨에게는 러시아 최초 여성 우주인 기념메달이 수여됐다.

상표권 분쟁 예방 위해 상표 이의신청제도 적극 활용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는 어떤 상표가 출원되어 심사관이 당해상표를 상표법의 제 규정에 의거 심사를 한 결과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출원공고된 경우,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일반공중 심사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심사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심사의 완전무결함을 기하기는 어렵고, 또한 혹시 심사관이 자칫 간과하거나 주관적,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잘못 출원공고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에 참여케 하여 결함있는 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상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그의 상표등록이 부적절한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자기의 상표권을 미연에 방어하고 나아가서는 부실권리의 상표의 등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청구절차와 비용도 간단하고 저렴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향후 특허청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의심사처리기간을 현행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5~6개월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 이를 위해서 각 심사과장 책임 하에 각 심사과별로 월별, 연별 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되 심사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는 과장 및 심사관의 평가과과에 반영토록 하며 '이의신청 심사종결 예정통지문'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이의신청의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경력직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전담하도록 하는 '이의심사 전담관제' 운영으로 특별 보직관리하여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고 있다.

이의신청심사업무도 현행 심사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특허심판원에 가칭 '상표이의 전담심사부'를 설치하여 이를 수행케 함으로써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과학기술자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

특허청(청장 김중갑)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한국 지식재산센터(KIPS)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과학기술자 2백50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특허정보 활용은 R&D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정부부문에서 수행한 R&D사업 중 이미 개발되어 특허까지 받은 기술을 다시 개발한 과제가 무려 6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유럽특허청에 의하면 유럽은 연구개발 중복투자로 매년 2백억달러 이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김중갑 특허청장은 앞으로 특허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2002년도 한국전산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R&D사업 수행 시 특허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구비용의 11.2%가 절감된다고 분석된 바 있어, 이를 2003년도 한국의 전체 R&D투자비 19조 6백억에 적용하

면 약 2조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연구기간도 21.2%가 단축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연구개발기간의 단축은 기술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선봉장인 과학기술자들이 특허정보 활용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핸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특허청의 사이버지재권교육기관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에 과학기술자를 위한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사이버특허정보 활용과정' 운영 및 관련지식과 자료를 제공 할 예정이다.

부산 동래구청 이춘기씨 '야광 쓰레기 카트' 특허 획득



야간에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야광 쓰레기 카트'를 설계한 부산 동래구청 이춘기 계장.

깜깜한 새벽부터 쓰레기 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에서 자주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구청 공무원이 이를 막기 위한 '쓰레기 수거용 야광 카트'를 직접 개발해 미화원들에게 보급하고 특허까지 획득했다.

주인공은 부산 동래구청 청소행정과 이춘기(53) 청소행정 계장.

이 씨는 평소 구청 소속 미화원들이 야간이나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까 궁리하다 '번쩍이는 점

멸등을 쓰레기 수거 손수레에 부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용접 등 손재주를 가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직접 카트 제작에 나서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20대를 제작해 환경미화원들에게 보급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특허청에 실용신안까지 출원해 최근 특허 등록을 따냈다.

이 씨는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1m 크기의 이 카트에 부착된 점멸등은 야간에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고 빗자루 꽃이판, 마대걸이 등도 부착돼 있으며 손잡이를 이용해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트 가격은 자체비 등을 모두 합쳐 대당 10만원 안팎이다. 동래구청 측은 앞으로 40대를 추가로 제작해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60여명에게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대신고교 '발명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

대전 대신고등학교가 '2004 발명 콘텐츠 공모전'에서 단체 부문 대상을 비롯해 개인 부문 동상, 지도교사상 등을 휩쓸어 전국적인 발명 우수학교로 급부상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청이 후원하는 '2004 대한민국 발명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전 대신고 발명 동아리 'Scivill'이 '발명반·동아리 자랑'으로 단체 부문 대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신고 박현우군은 '이온화 원리를 이용한 편리한 발명 모래시계'를 제작해 개인 부문 동상인 한국특허정보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오기영 교사는 단체 부문 우수지도교사상인 특허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발명 우수학교로 급부상했다.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의 개인전 대상에는 인천 옥련초 정수민·수환 형제가 유전자 복제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각을 '발명가의 꿈'이란 주제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최고상을 수상, 주목을 받았다.

2회째를 맞이한 동 공모전은 일반인의 발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출품된 우수 콘텐츠를 지적재산권 교육 활성화에 접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발명진흥회 측은 전했다. 이번 수상작들은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에 전시돼 지적재산권과 발명 홍보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특허청, 특허 권리회복제도 도입

이르면 올해부터 특허권 권리회복제도가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14일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됐을 경우 추가 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면 특허권을 회복해줄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계산 착오 등 단순 실수로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변리사회 등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영국은 변리사 등의 단순 실수로 인한 특허료 납부 기일 경과는 19개월까지 권리 회복 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경우도 납부기간 경과 후 각각 2년, 1년 이내에 권리회복 회복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료 납부기간 후 6개월 이내(일부 납부자는 1개월 연장)에 특허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구제절차 없이 특허권은 자동 소멸돼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권리회복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구제신청 기간을 보전기간 후 3개월 이내로 제한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허법 개정법률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을 고쳐 2005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업계 '특허 CEO 포럼' 돛 올렸다

전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늘고 있는 특허분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허 CEO 포럼'을 발족했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이희국 LG전자 사장, 정문식 이레전자 사장 등 54명의 전자업계 CEO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최로 '특허 CEO 포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2004년 한 해동안 특허료로 1조5천억원을 지불하였고 오는 2010년에는 2조5천억원을 지출할 것'이라며, '단독 투자로 2006년 초 가동할 예정이었던 탕정 LCD 7-2 라인도

7-1라인과 마찬가지로 소니가 원할 경우 합작 형태로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또 OLED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삼성SDI 간 힘겨루기와 관련, '누구든 잘하는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삼성SDI도 삼성전자가 대주주인 만큼 열린 경쟁으로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축사에서 '수출 1천억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전자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특허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에디슨 특허기록 갠 일본인 발명왕 탄생



발명왕의 칭호는 수적으로만 따지면 더 이상 토머스 에디슨의 것이 아니다. 일본 가나자와(神奈川)에 있는 반도체 에너지 연구소 사장 야마자키 순페이(山崎舜平, 62)의 특허 출원기록인 3천2백45건이 세계 최다로 인정받아 기네스북 개정판에 등재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네스북에 역대 특허 출원 건수 1위 기록은 에디슨의 2천3백32건이다.

야마자키 사장의 대표작은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의 기억매체로 이용되는 플래시메모리의 기본 원리

에 관한 특허다. 지금 시장 규모만 1조엔(약 10조원)을 넘는 대표적 반도체 소자지만 실은 야마자키 사장이 30여년 전인 도시샤(同志社)대 대학원 재학 시절에 취득한 것이다. 그는 20대에 이미 1백30건의 특허를 땀고, 1980년에 반도체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했다. '일본은 모방 기술이 많지만 보다 독창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전념했다고 그는 말한다. 야마자키 사장은 박막 트랜지스터, 태양전지, 각종 표시 소자 등 첨단 분야에서 계속 특허 수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물론 미국 등 해외 특허도 많다.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⑦

OEM 생산시는 특허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OEM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든 후 수출하는 방식의 사업인 경우에는 만일의 특허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계약으로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특허분쟁에 휘말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 H사(社) vs. 인텔사

H사(社)는 GI(General Instrument)의 OEM 주문을 받아 반도체기억소자(EPROM)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던 중, EPROM에 대한 미국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텔사로부터 특허권침해로 미국의 ITC에 제소당한 사례가 있다.

이에 H사(社)는 ITC로부터 EPROM 및 관련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사점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계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히 OEM 방식의 수출이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만일의 특허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